



## 관내 동향

### □ 블랙이글스, 사천서 특별 에어쇼 · 곡예비행 (10.21.~ 10.24.)

-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는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이었던 '공군과 함께하는 2020 사천에어쇼' 연기에 따른 아쉬움을 달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민과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위로하고자 **블랙이글스의 특별 에어쇼와 사천 랜드마크 촬영 행사 개최**
- 랜드마크 촬영은 10월 22일 오전 11~12시에 삼천포대교-사천대교-사천시청-항공우주공단 상공을 2회 왕복 비행, 특별 에어쇼는 10월 24일 오후 1시부터 30분간 삼천포대교 상공에서 진행
- 한편 특별 에어쇼는 10월 24일 오후 1시 블랙이글스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비대면 행사 참여도 진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블랙이글스의 특별비행

### □ 사천시, 항공업체 위기극복 다각화 '마스크' 구매 동참

- 코로나19 장기화와 보잉 737MAX 생산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천 지역 내 항공업체는 유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항공업체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크' 판매 사업에 나섬

- 이에 사천시청 전 부서 직원들은 ‘마스크’ 약 75,000매, 약 3,000만 원 상당, 사천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마스크’ 약 25,000매, 약 800만 원 상당을 구매해 항공업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탬
- 업무추진용으로 구매된 마스크는 재난지원 및 방역,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

## □ 한국항공우주, 첫 美 항공기술 스타트업 투자·UAM 사업 진출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의 항공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본격 진출
- T-50, 수리온 등 항공기 제조 등에 집중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급변하는 미래 항공 분야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 11월 3일 카이는 항공기에 장착돼 비행 자료를 기록, 비행 종료 후 자료를 정밀 분석해 각 항공기에 적합한 주기 정비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상태감시시스템(HUMS) 업체인 미국 소재 GPMS에 대한 투자를 결의
- 카이의 이번 투자는 항공기 제조 사업과의 시너지와 유인 드론과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로 HUMS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 항공업계 관계자는 “카이가 기존의 항공기 제작 사업을 넘어 급성장할 항공 기술 분야를 주목해 투자를 단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도내 동향

### □ 경남도, 미래형 개인항공기 산업 육성 위한 국제학술회의

- 11월 13일 진주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이 공동 주최하는 『2020 UAM(K-PAV)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 지난 10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개최된 국제 PAV 기술경연대회의 연계 행사로서 2016년부터 진주시에서 매년 개최
-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과 보잉코리아 에릭 존 대표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기업 및 기관 전문가들이 PAV(미래형 개인비행체) 관련 정책동향과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내외 PAV 선진기술을 공유



## 국내 동향

### □ 항공업계의 눈물겨운 사업 '관광비행'...얼마나 이용했을까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잇따라 '관광비행(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을 출시
- 제주항공은 10월 23일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먼저 관광비행을 진행해 좌석 121석이 만석을 이뤘으며, 에어부산도 전체 120석 중 10월 30일 114명, 10월 31일 99명이 탑승
- 관광비행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비행기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매출상승도 일정 부분 해소시켜줄 것
- 향후 관세청과 법무부의 협조가 있다면 관광 비행만으로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 항공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 현대차,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 개발 추진

- 현대차가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Cargo UAS) 개발을 추진한다고 11월 9일 발표
-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는 기존 소형 화물 운송용 드론과 달리 중형급 화물을 나르기 위해 고정익 형태의 무인 항공기로 개발, 도심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 방식이 채택
- 화물 운송용 무인항공기는 도시 간 중형 화물 운송에 활용돼 도심 물류 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현대차는 11월 22일까지 국내 항공·항공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 참여 신청을 받아, 우수 항공업체가 개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국내 항공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



## 해외 동향

### □ 항공산업 또 해고...보잉 "1만1천명 추가 감원 예상"

-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닥치면서 경영난을 겪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기존에 발표한 2만 명에 이어 추가로 1만1천 명의 감원을 예고
- 보잉의 인력 구조조정은 결함 논란을 일으킨 737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과 코로나19로 민간 항공기 수요까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
- 미국항공산업협회(AIA)에 따르면 항공 여행 수요 부진과 항공기 제작 감소로 인해 올해 들어 미국 항공업 일자리는 이미 10만여 개가 영향을 받았으며, 추가로 22만개의 일자리가 위험한 상황

### □ 버튼만 누르면 3분만에 자동차가 비행기로...1천Km 난다

- 슬로바키아의 신생기업 클라인비전은 3분 안에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변신할 수 있는 에어카(AirCar)라는 이름의 플라잉카 시험비행에 성공
- 이 플라잉카는 전환 모드의 버튼만 누르면 접혀 있던 날개가 좌우 양쪽으로 퍼지며 자동차가 비행기로 변신
- 공항까지 가서 보안 수속을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비행기로 전환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점 등이 에어카의 장점
- 유럽항공안전청(EASA)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비행 시험을 마치고 나면, 이후 6개월 안에 300마력 엔진을 탑재한 시판용 플라잉카를 내놓을 예정

작성일	2020. 11. 16.(월)	보고일	2020. 11. 20.(금)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오은미(055-831-3478)